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동인(動因)으로서 표류에 관한 연구

김해영 · 양진건
(제주대학교)

<요 약>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제주도가 폐쇄된 섬이라는 특징과 자연환경 때문에 표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조선시대 제주도 교육사형성의 또 다른 중요한 동인으로서 표류의 영향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제주의 지리적·환경적 특징에 대해 살펴면서 제주도와 표류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 표류인들이 남긴 표류기에 나타난 교육적 진술들과 교육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표류기록에 나타난 이문화접촉, 이문화이해, 이문화전파의 과정을 통해 제주인들의 의식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의식변화가 제주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선상, 과거, 유배 등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진 수동적인 동인과 달리 표류는 제주인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에 대한 영향이 아래로부터, 내부로부터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동인과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교육은 지배계층에 의한 지배를 위한 형식적 교육인 것이 아니라 지방 민중에 의한 민중의 삶을 위한 사회교육이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표류, 제주교육사, 동인, 민중, 이문화이해

I. 서론

일반적으로 표류란 범선항해의 전근대시기에 발생한 불가피한 재난사고를 의미한다. 특히 해로를 통해서만 타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서(島嶼)지역과 해상활동이 활발한 연해지구에서는 이 같은 표류가 일상이라 할 정도로 허다했다.

조선시대의 절해고도였던 제주도는 가장 대표적인 표류다발지역이었다. 표류를 통해 많은 제주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멀리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타국에서의 경험과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기록들은 당대의 제주와 동아시아 각 나라와의 교류를 이해

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당대 제주인들의 이문화접촉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라는 점에서 교육학적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문화란 넓게는 모든 종류의 낯선 문화를 지칭하지만 간단히 타국문화를 가리킨다. 오늘날 이문화이해는 흔히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루어진 글로벌화 시기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이문화접촉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전통시대에는 이문화이해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제주인들은 표류를 통해서나마 이문화접촉을 할 수 있었으며 그로인한 이문화이해는 따라서 당대의 제주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는 오랜 기간의 해금정책으로 공식적인 해상활동과 외교활동을 제외한 해외 이동 및 무역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외국인의 입국 역시 엄격히 통제되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200년간의 출륙억제정책으로 해외는 물론 육지부와의 교류도 지극히 공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려웠다. 따라서 표류는 그것이 비록 해난사고이기는 하나 제주인들로 하여금 이국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절호의 기회였고 다양한 실생활을 위한 삶의 지혜를 제공하였으며 제주인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준 계기가 되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류로 인한 제주인들의 의식변화는 당대의 제주사회는 물론 제주교육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교육사를 형성시킨 동인으로 선상(選上), 과거(科擧), 출륙억제(出陸抑制), 유배(流配) 정책이 제기된 바 있다(양진건, 1999). 그러나 이 동인들은 주로 중앙에서 시행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영향이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진 수동적인 것이라면 표류는 제주인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에 대한 영향이 아래로부터, 내부로부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동인과 매우 차별적이다.

동아시아 각 국가 간 발생했던 표류에 관한 연구는 크게 역사와 문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 역사분야에서는 표류민의 신분, 유형, 상업활동, 이국에서의 문화체험, 송환체계 및 선박상황과 장려 나아가 위장표류에 대해 주로 연구(민덕기 외, 2000: 6~7; 원종민, 2008: 227) 되었다. 문학 분야에서는 주로 표류기록을 중심으로 그 문학적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¹⁾가 진행되었다. 반면 표류를 교육과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²⁾. 특히

1) 대표적으로 1488년 <최부 漂海錄>, 1771년 <장한철 漂海錄>, 1757년 이지항의 <漂舟錄>, 1797년 이방익의 <漂海歌>, 1805~1818년 문순득의 <漂海錄>, 1818년 최두찬의 <乘槎錄> 등이 있고(吳賸錫, 漢文紀行 研究-張漢喆의 漂海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년) 비교적 전면적으로 표류문학에 대해 다룬 논문으로는 윤치부의 박사논문이 있다(尹致富, 『韓國 海洋文學 研究-漂海類 作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년).

2) 김은종의 석사논문은 최부 표해록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다루어 제목에서 보면 교육에 접목시킨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문학적 접근인 국문학연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김은종, 금남표

조선시기 제주도와 같은 표류다발지역의 특징상 교육사의 형성에 표류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인들이 남긴 여러 가지 표류기록들을 문헌고증학적인 방법에 의해 이문화접촉과 이문화이해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자료에 나타난 제주인들의 이문화이해가 당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논함으로써 표류가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일 동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II. 표류와 제주도와의 관계

제주도는 한양 중심의 한반도에 있어서 원악지, 벽지이지만 동아시아 판도에서 바다중심의 해상교통망으로 보면 서쪽으로 중국과 황해와 동해를, 필리핀, 안남 등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동쪽의 일본열도와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있고, 북쪽으로 한반도를 맞대고 있어 사면팔방이 확 트인 요지중의 요지로 가히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여 동서로 순풍에 한번 돛을 올려 불과 5, 6일의 노정이면 육지에 닿을 수 있다 하였고³⁾ 오가는 배들이 태풍 피난을 하거나 식수공급을 받기도 했다⁴⁾.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서도 “배를 타고 한중(韓中)을 왕래하며 물건을 사고 판다”고 표현하였다⁵⁾. 이렇듯 제주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아시아 각 나라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전통시대 제주도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으로 자급자족의 생활이 어려웠다. 하여 생필품을 교환하기 위해, 어업을 위해 출항을 거듭해야 했고,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특산물을 호송하는 진공선들이 시즌에 따라 출항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바람의 동력에만 의해 항해를 하던 전통시대에 있어 일기 불순으로 인한 뜻하지 않는 표류현상이 잦았을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제주인의 표류 관련 기록은 일찍 탐라국시기의 건국신화⁶⁾, 혹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도 보이지만 제주도가 하나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시기 문헌에는 빈번히 나타난다(김봉옥, 2001: 46).

본격적으로 표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표해록을 저술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기

해록의 교육적 활용방안,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1-7쪽 참조).

3) 《정조실록》, 정조 18년 3월 8일 (을미)

4) 《현종개수실록》, 현개 13년 12월 5일 (병오), 《정조실록》, 정조 18년 3월 8일 (을미)

5) 『三國志』 卷 030, 魏書 30, 東夷傳 第 030

6) 삼을나(三乙那) 신인(神人)들이 동해변에 떠오르는 나무상자를 받아 그 속의 여인을 배필로 삼아 나라를 세웠다는 신화.

부터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양성(梁成), 초득성(肖得誠), 김비의(金非衣), 이섬(李暹), 정회이(程廻伊), 김기손(金紀孫) 등 일행의 표류기와 최부(崔溥)의 표해록,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 고상영(高商英)의 표류기, 박손(朴孫) 일행의 <유구풍토기> 등 독립적 기록들이 대표적이다. 최근(2008)에는 제주인 14명의 표류기를 담은 문건록이 표류기록의 새로운 발견으로 등장하고 있다(정운경 저, 정민 역, 2008).

제주인들의 표류경험에 당대의 중앙, 제주 관리, 지식인 등 상위계층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주 표류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사신 혹은 상단을 따라 귀국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다보니 임금을 알현하고 귀향하게 된다. 임금은 홍문관이나 특정 학자 혹은 표류자 본인에게 명하여 특이한 표류인들의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김비의 표류기는 홍문관에서 쓴 것이고, 박손 표류기는 주서(注書) 윤결(尹潔)이 명을 받고 기록한 것이며 이방익의 표류기는 연암 박지원(朴趾源)이 기록한 것이다. 최부 표류기는 임금의 명으로 표류자 본인이 기록한 것이다.

제주목에 내려온 목사들도 관심을 보였는바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 1633~1704)는 제주 목사 재임 시의 일을 기록한 《지영록(知瀛錄)》에 <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 을 담고 있으며 정운경(鄭運經, 1699~1753)은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 와서 기이한 제주 백성 14명의 표류기록을 담은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을 저술하여 당대 지식인들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이 책과 관련한 언급을 남긴 당대의 지식인들로는 이익(李穡, 1681~1763), 박지원(朴趾源), 서유구(徐有榘)와 황윤석(黃胤錫), 유만주(兪晩柱), 이규경(李圭景) 등 모두가 18세기 쟁쟁한 문인이자 학자들이다(정운경 저, 정민 역, 2008: 20). 이들은 주로 《탐라문견록》의 외국 풍물과 외국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표류기에 큰 흥미를 보였던 것이다.

그럼 제주인들의 표류경험과 표류기록들에 하위계층 즉 제주민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조선시대 민간인이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표류였다. 표류로 인해 제주인들은 당대의 지식인마저도 상상하지 못할 곳에 갈 수 있었다. 중국 표류 제주인들의 주요 표착지는 복건성, 절강성 등 지역인데 이는 중국의 강남지역으로 문화의 발달과 아름다움으로 자고로 문인들의 고향이다. 명 건국으로부터 북경 천도까지의 50년은 강남기행이 공식적으로도 가능한 시기였으나 1421년 명 북경 천도이후 공식적인 사행이 강남에 이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강남은 조선 문인들에게 동경과 미지의 땅이었고 조선인들이 강남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표류가 되었던 것이다. 표류기록을 남긴 표인들 중 이섬, 김기손, 최부, 이방익, 최두찬, 김광현 등이 표류하여 강남을 체험하였다.

일본의 북해도(南蝦夷) 역시 조선시기 표류가 아니고선 도착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 지향의 표주록⁷⁾이 그곳의 문화체험을 담고 있다.

특히 유구(현재의 沖繩)와 안남(현재의 베트남), 여송(현재의 필리핀) 등 지역은 조선 왕조에 있어 외교관계가 미약했던 곳이며 오히려 표류를 통해서 그곳의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유구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열도이므로 유구 표류자들은 많지만 다양한 섬들의 풍토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양성, 김비의, 초득성, 장한철 등 표류인들이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안남과 여송은 조선과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역시 표류인이 아니면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고상영, 김대황은 안남 표류기행을 기록함으로써 그 풍토를 전했다. 전라남도 나주(羅州) 흑산도의 문순득(文淳得)은 여송국에 표류하여 그 기록을 남겼다⁸⁾.

이렇듯 제주인들이 해외로 표류해 갔는가 하면 제주도에는 외국인들의 표도사건도 빈번했다. 제주도에 표도한 표류민들은 대개 중국, 일본, 유구가 다수였고 여송이나 안남인들도 있었으며 더 멀리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인들도 있었다. 표도인들은 대부분이 상인들이었고 관리나 군인, 소수의 백성들이었다.

그 중 서양인의 표도는 대표적으로 두건을 들 수 있다. 1627년 서양인 박연(Jan Janse Weltevree)이 제주도에 내박하여 조선은 처음으로 서양과의 접촉을 가졌으며 그는 중국에서 수입한 홍이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군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이어서 1653년에는 네덜란드인 하멜 등이 내박해 제주도에서 10개월 머물었고 조선국에서 13년간 머물다가 탈출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서양선의 내박이 있었는데 이렇듯 서양의 표도 역시 제주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제주계록》에 나타난다. 제주 백성 김성진이 정의현에서 서귀포로 가던 중 표류하여 이양선을 만났는데 의사소통이 불가하므로 일찍이 서양 사람들이 제주에 표도하였을 때, 그 배의 구조와 사람의 모습을 보아 알고 있었으므로 서양 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⁹⁾.

제주 사회에서 표류나 표도가 사회에 일반화되고 영향을 미친 예로 위장표류와 같은 빈민들의 사기행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장표류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스스로 배를 몰고 타국에 가서 마치 표류해서 간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신은 타국에서 표류해 왔다고 자처하는 경우이다. 제주인 고한록은 연속 4번이나 계획적인 위장표류를 하기도 하였는데 배를 스스로 몰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마치 표

7) 《국역해행총제》 III, 민족문화추진회, 1989 에 수록되어 있음.

8) 최덕원, 문순득의 표해록 : 유구 및 여송 표류기,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14, 1980 부록에 그 전문이 영인으로 소개되었음.

9) 《제주계록》, 서귀포시, 1995, 294쪽

류된 것처럼 위장하였다¹⁰⁾. 그는 선후로 1827년, 1833년, 1836년, 1837년 10년 사이 4차례에 걸친 위장표류를 하였다¹¹⁾. 고종 14년에는 제주인 이원춘이 두 차례나 고의로 표류하고 머리를 깎고 일본 옷을 입고 이름을 고쳐 일본인 행각을 하다가 사형을 당했다¹²⁾. 숙종 13년 호남의 한 백성이 스스로 자신은 중국 복건성에서 표류해 온 류련리(劉連里)라고 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여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¹³⁾

또한 제주 표류인들은 이국에서 문정 받을 때 출신지를 속이는 경향이 있었다. 《제주계록(1846~1858)》 27건의 생환기록의 대부분이 제주출신지를 강진, 해남 등 전라도 지역으로 환칭하였다. 또한 한라일보(2009. 03. 20)에서는 1592~1909년 제주 해난사고 150건 중 출신지 속인 사례가 97건이라고 하였으며 김대황의 안남표류기에서도 조선국 전라도 흥덕현 사람이라고 속였다. 김비의의 유구 표류기에서도 조선국 해남 사람이라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 장한철 역시 유구국 호산도에 표류하였다가 안남상선을 만나 구제 되었으나 곧 제주인임이 밝혀져 쫓겨나게 된다(김봉옥, 김지홍, 2001: 234-235). 이와 같은 현상은 대체로 유구와 안남태자 피살설이 제주도에서 알려졌으며 또한 안남이나 유구에서도 자신들의 태자가 제주인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믿고 있기에 발생한 일이다. 다음은 유구나 안남국에서 보는 제주인들의 이미지이다.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일찍이 일본으로 표류하여 떠내려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동남쪽 여러 나라 사람들은 탐라(제주)를 ‘바깥 고려’라고 부르는데, 바깥 고려 사람들이 가장 사납고 악독하여, 여러 나라에서 왕래하는 장사 배들이 혹 뿔나무나 먹을 물이 부족하거나 혹 배의 기구를 잃어 버려 이를 보충하고자 배를 해안가에 가까이 대려고 하면 병사들을 출동시켜 이를 지키고 뿔나무와 먹을 물을 얻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여 해안에 가깝게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그 탐라 사람을 만나면 죽여 버리지 않음이 없다.」(김봉옥, 김지홍, 2001: 192)

이러한 위장표류나 출신지 환칭과 같은 기사들은 표류와 제주도의 깊은 관계를 설명 해주며 표류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히 짐작케 한다.

10) 《헌종실록》, 헌종 4년 7월 21일 (경신)

11) 위장표류 관련 연구는 2009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표류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의 류서풍의 논문 참조 (류서풍, 2009 : 75-95)

12) 《고종실록》, 고종 14년 8월 12일 (갑오)

13) 《숙종실록》, 숙종 13년 5월 2일 (기묘)

14) 《성종실록》, 성종 10년 6월 10일 (을미)

Ⅲ. 표류기록들에 나타난 교육적 내용

1. 제주인의 눈에 비친 이국의 교육실정

표류기에는 표류국의 풍속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있으나 직접 교육 관련 진술은 적었다. 그 이유는 대개 표류한 지역에 교육이 없었거나 표류인들의 의식이 교육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교육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표류기록에서도 문화의 변화함을 기술했지만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역시 드물었다. 그러나 제주인들에 눈에 비친 표류국의 과거제도, 관직, 종교 등에서 그곳의 교육문화를 엿볼 수 있고 제주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표류국 교육에 대한 직접 진술로는 박손 일행의 표류기록에서 유구국 귀족 자제들의 교육실태가 등장하는데 주로 중국 유학을 통해 학문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卿相)의 자제로서 연소한 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은냥(銀兩)을 많이 싸 주어 바다를 건너 남경(南京)에 들어가 유학하면서 남북 양경(兩京)에 어음(語音)을 겸해 익히게 하고 그들의 학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배를 보내어 데리고 돌아온 다음 그들이 배운 바를 시험하여 능통한 자에게는 관직을 주고 능통하지 못한 자에게는 은냥을 도로 징수한다. 그러기 때문에 남경에 들어가 유학한 자는 자신의 학문이 성취되지 못함을 알면 감히 돌아오지 못한다.

또한 박손의 표류기에는 비록 그 형태는 구체적이지 못하나 여자들도 교육을 받았을 법한 “여자도 관직이 있어 모든 여정(女政)은 다 여관(女官)이 재결하고, 조아(朝衙)도 국왕에게 하지 않고 왕비에게만 한다”¹⁵⁾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당대의 제주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나 남존여비의 사상이 심각한 조선사회에서 이는 표류인들에게 각별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 외에도 김비의 표류기에서는 표류국의 풍속에 추장이 없고 문자를 알지 못했으며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¹⁶⁾. 이점은 중국 조정의 사람들과 시로써 교류하여 무신(武臣)으로서 언론과 글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은바 있다¹⁷⁾.

그런가하면 과거시험이나 관직 등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표류기에 나타난다.

《탐라문견록》의 신촌 사람 윤도성의 표류기(정운경 저, 정민 역, 2008: 71)에는 표착지 도독이 윤도성 일행에게 “너희 나라에도 과거제도나 벼슬에 임용하는 규례가 있는

15) 《명종실록》, 명종 1년 2월 1일 (무자), 박손 일행의 표류기

16) 《성종실록》, 성종 10년 6월 10일 (을미), 김비의 일행의 표류기

17) 《성종실록》, 성종 14년 9월 5일 (을미)

가?”고 묻자 “대국과 견주어 한 몸인지라 이 같은 규례가 있다”고 답하여 과거제도 관련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최부 표해록(김봉옥, 김지홍, 2008: 78-79)에는 안찰 제조 학교(按察提調學校)부사¹⁸⁾ 정(鄭)씨와의 대화에서 조선의 과거시험제도, 시험방법, 시험내용에 대해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문장의 체제와 경전에 관해서도 자세히 묻고 있으며 역(易)이라는 한자의 뜻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표류가 실생활교육에 미친 영향

표류 제주인들은 표착지 원주민들과 주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김비의, 장한철 등 여러 표류기에서도 필담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나 탐라문건록의 표류기를 비롯한 초기의 표류기록들에는 필담의사소통이 적게 등장하는데 비해 조선말기 제주문헌 《제주계록》의 27건 생환기록에 보면 하나같이 글로써 대화를 했다는 필담 의사소통형식이 등장한다. 이는 표류인의 신분이 소수의 최하층 관리인 중인과 대개 양인(良人)이하 천민계층이었다(박진미, 1996: 207; 고동환, 1993: 193-294)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조선전기 표류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문자를 몰라 필담마저도 어려웠던 것에 비해 조선말기 표류기록들에는 필담이 자유로운 듯 보인 것은 제주인들이 그만큼 글 읽히기를 중히 여겼다는 단편적인 단서가 되겠다.

잡은 표류로 인해 제주인들은 선박기술이나 외국어에 비교적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초로 제주도에 표도한 서양인 박연이 홍이포의 제작과 사용법을 가르친 것처럼 <왕조실록>에는 여러 건의 표류민에 의한 기술 전수사례가 등장한다. 명종1년에 제주에 표도한 중국인 가운데 역청(瀝靑) 만드는 법과 총통(銃筒)을 만들 줄 아는 자가 있어 그것을 전수받고자 기술 표도인은 가장 늦은 편에 송환하도록 조치¹⁹⁾한 기사가 있다. 그런가 하면 명종 1년에 제주(濟州) 사람 박손(朴孫)이 표류 끝에 유구국(琉球國)까지 갔다가 쇄환(刷還)되어 돌아오면서 중국에 이르렀을 때 복건도(福建道)에서 수차(水車) 제도를 보고 익혀 왔다고 하여 보급시키자²⁰⁾는 기록이 있다.

또한 여러 표류기에서 표류자들은 자신들이 본 이국의 기타 기술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는 내용들이 등장한다. 제주 백성 김일남·부차웅의 유구국 표류기(정운경 저, 정민역, 2008: 118)에서는 중국 복건 포성현에서 배 만드는 과정과 항주 서호에서 수차로 쌀 찧는 물방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8) 학교에 관한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끌어 준다는 뜻의 벼슬

19) 《명종실록》, 명종 즉위년 11월 3일 (임술)

20) 《명종실록》, 명종 1년 4월 23일 (기유)

10월 초 2일, 복건을 떠나 물길로 24일을 가서 포성현에 이르렀다. 강 한 곳을 보니 배를 만들기 위해 다리를 만들었다. 그 제도는 큰 배를 가로로 좁게 하여 강을 막고, 배 양 끝에 쇠못을 박아 큰 쇠줄 두 가닥으로 둘러 배의 아래 위를 꿰었다. 그리고 둥글게 둘러싸서 강의 양쪽 언덕에 잡아맸다. 배 위에는 긴 판자를 깔아서 길가는 나그네를 지나가게 했다. 혹 다른 배가 강물을 따라 오르내릴 때는 긴 판자를 치우고 양옆의 다리 배를 밀쳐서 한 줄기 길을 열어주었다.

들보 둘레 허리 부분에는 절구 공이 12개가 부착되어 있고, 들보의 양끝에는 버팀목을 어지럽게 꿰어놓았다. 버팀목은 길이가 4~5자인데, 20여 개나 되었다. 버팀목 끝에 나무로 만든 표주박을 달아놓고는 이것을 물에 담가 거꾸로 흐르는 물결을 길어 올린다. 물의 형세가 내뿜으며 차올리므로 나무 표주박이 엎어지면서 차례로 물을 길어 차례로 엎는다. 이에 방아의 들보는 빙빙 돌면서 뒤집어져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누각 가운데는 돌을 깔고 절구 네 개를 파서 공이를 받아 쌀을 찧는다. 잠깐 만에 10여 석의 쌀을 정미(精米)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민중출신의 표류인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정보였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교류를 하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언어가 통하지만 방언이 심한 유구의 작은 섬 같은 경우는 필담마저 불가능해지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 조선에 표도하는 유구나 여송인들이 있으면 조정에서는 의사소통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마련이었다. 제주인이 유구 언어들을 알고 있다는 좋은 예로 중종 25년(1530)의 기사에 표도인의 말을 통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표류한 자는 7인이다. 그 이름은 첫째 풍가나(豊加那), 둘째 아가두(阿加豆), 셋째 마무나(尔無那), 넷째 타마자나(他尔者那), 다섯째 위나(危那), 여섯째 빈오리(賓五里), 일곱째 잉기(勝其)라 하는데, 왜학 통사(倭學通事)와 한학 통사(漢學通事)가 모두 그들의 말을 모르므로 제주(濟州)에서 호송하여 온 사람을 시켜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유구국 사람으로서 마도(尔島)에서 사는데, 올해 7월 사이에 벼베리 이남원도(尼南院島)에 나왔다가 폭풍을 만났다. 표류한 지 9일 만에 큰 육지에 닿았는데, 한 관원이 보고서 불쌍히 여겨 술과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었다’하였다.”²¹⁾

이렇듯 제주인이 통역하면서 그곳에 표류했던 조선인, 중국 조공여부, 의복, 음식, 예의, 농사 등 풍속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이 등장한다. 또한 표류하여 유구와 여송에 갔다가 돌아온 나주 흑산도 사람 문순득 역시 통역하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보인다²²⁾. 위장표류를 하였던 고한록이나 류런리 등 역시 외국어에 능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21) 《중종실록》, 중종 25년 10월 1일 (정사)

22) 《순조실록》, 순조 9년 6월 26일 (을묘)

이처럼 한자교육, 기술교육, 외국어교육 등에 영향을 미쳤을 표류현상은 비록 무의식적이고 돌발적이긴 하였지만 표류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혜는 제주인들에게 더욱 슬기롭게 자연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결국 표류는 그들에게 삶에서 꼭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들을 마련하는 중요한 생활교육의 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기록들로부터 표류가 제주사회 특히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제주 민중의 표류경험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개 왕명을 받은 부서나 학자였고 또 제주도를 방문하게 된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은 표류가 미치는 영향의 과장을 짐작케 한다.

IV. 표류기록의 이문화이해가 제주교육사 형성에 미친 영향

문화의 접촉은 이문화에 의한 직접 가지적으로 보이는 영향뿐 아니라 정신적 사고 및 언어 내부적 파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윤경, 2008: 243). 표류인들이 남긴 기록에서 교육관련 직접적인 진술들은 적었지만 표류인들의 의식변화를 잘 보여주는 간접적인 진술들인 그들의 눈에 비친 이문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들은 이문화이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표류인들은 기록을 통해 이문화 접촉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그들의 의식변화의 단서가 된다. 그러한 의식변화는 이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과의 접촉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는 이문화이해과정으로 해석되며 교육은 곧 인간접촉의 과정이라는 논리에 따라 이문화이해교육으로 연결된다. 즉 표류자들은 귀환과 더불어 직·간접적인 기록으로 표류지역에서의 이문화체험을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결국 사회적으로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유폐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결국 그러한 이문화이해는 시간의 흐름과 표류자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하나의 경험주의에 입각한 지식이 되었고 그것은 당연히 사회의 변화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표류인들이 표착지의 이문화체험을 통한 의식변화는 대개 세 방면으로 알아볼 수 있다.

우선, 표류인들은 표착지의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대체로 자국문화와의 비교에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포함한다. 즉 자기중심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피아(彼我)의 상위인식(相違認識)이 표현되는 경우이다. 많은 표류기들은 표착지 풍속이나 문화의 깊이보다 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사회의 내부적 구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표피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주로 상위인식에서 오는 것이다.

김비의의 유구 표류기에는 유구의 여러 섬을 거치면서 그곳의 풍속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다. 여러 섬의 형승, 의복 및 장식, 언어, 음식, 주거(住居), 무기 및 도구, 농사 및 농작물, 과일 및 채소, 짐승 및 곤충, 장례 등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보기 드문 왕모의 출유장면과 병란으로 싸우는 장면까지 다양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문화정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고 생소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양성 일행의 표류기에는 보기 드문 시간에 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화폐와 도량형의 부피 환산법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중국의 조칙과 조선의 서계가 당도할 때의 의식과 국왕의 장례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특이한 문화풍토를 전해주고 있다. 그 중 시간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²³⁾.

경점(更點)은 대궐 남문(南門)에 나무로써 누기(漏器)를 만들었는데 그릇의 몸체는 둥글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고, 그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물을 정량(定量)하여 부어 넣은 다음 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헤아려서 이를 1경(更)이라고 하며, 드디어 북을 쳐서 알렸다. 북치는 수는 그 경(更)의 수와 같았고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는 본국과 다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표류기록에서 군인이나 무기에 관계되는 기록들이 등장할 하는데 이 역시 중요한 군사적 정보로 될 수 있었다.

많은 유구국 표류인들의 기록에는 유구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으며 존장자를 만났을 경우 신을 벗는 것이 예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이한 문화는 그 후 상식화 되어 유구표류 조선인이든 조선에 표도한 이국인이든 그 문화를 파악함으로써 표착한 곳이 어디고 표도한 이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순조실록에 실려 있는 이국인 5명이 제주에 표류해 왔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가리지 못해 방법을 찾던 중 여송국에 표류하여 갔던 문순득의 표류기록에 의해 그 사람들이 곧 여송국의 사람임을 판단하는 기록이 있다²⁴⁾.

다음으로, 표류인들은 표착지에서 당지의 문화 말고도 당지에 표착하였거나 무역하러 온 기타 나라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

18세기 당시 일본에는 나가사키를 개항하여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사키에는 남만인(혹 아란타인: 네덜란드인)들의 거처인 남만관도 있었다. <탐라문견록>의 제7화 제주백성 이기득과 제8화의 김시위의 일본 표류기에서 남만인과 남만국 사정, 나가사키의 남만관에 대해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다. 조선인들은 표착지에서 또 다른 외국인을 만나는가하면 또 조선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게 된다.

23) 《세조실록》, 세조 8년 2월 16일 (신사) 양성 표류기

24) 《순조실록》, 순조 9년 4월 26일 (을묘)

그 기록에는 통사의 소개로 남만관을 보았을 때 본 남만인들의 모습을 소상히 적고 있다. 눈이 깊고 코가 높고 가늘고 길고 눈동자는 노랗고 몸체가 웅장하다고 하였다. 머리에는 붉은 담요를 들렀고 북방 오랑캐와 비슷한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사람들의 면모가 비슷하다면서 그들의 특이함과 제주인들이 서양인을 잘 구별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 서양인들의 독특한 누린내도 이야기해주고 있다(정운경 저, 정민 역, 2008: 99-101).

제7화 이기득의 표류기에서는 아란타 장삿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정운경 저, 정민 역, 2008: 94).

한낮에 배가 있는 곳에 가서 보니, 강의 너비가 10리쯤 되는데 큰 배 두 척이 강을 가로막고 왔다. 배는 아래 위 2층이었고, 비단 돛을 가로로 여섯 장을 걸었다. 한 면으로 된 천기는 장대만 15장(丈)이 넘었으니 그 배의 장려함을 알 수 있겠다. 사흘 뒤 배가 출발 할 때 아란타 사람을 보았다. 작은 배로 물에 내리는데, 이마를 덮은 고수머리를 꺾지도 않고 묶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게 된다. 남만이 제주도를 치려고 일본에 군대를 청해 길잡이로 삼겠다고 했었던 것을 일본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성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표류 제주인들은 제주도에서는 도저히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 폐쇄적이고 한정된 의식이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표착지에서 또 다른 이문화를 접촉하여 의식변화를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에 천주교 문화를 전파하고 첫 순교자로 된 김기량의 표류경험이다. 1857년 2월 약재와 그릇을 모슬포로 싣고 가던 도중 풍랑을 만나 표류한 김기량은 중국 광둥해안에서 영국 상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는 홍콩의 파리와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보내졌고 거기서 조선인 신학생을 만나게 되었으며 곧이어 세례를 받게 된다. 귀국 후 그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신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도에 천주교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전파에 선두 역할을 하였다. 김기량의 표류경험과 천주교 전파는 표류를 통한 이문화접촉으로부터 표류자들의 의식변화 및 귀국 후 이문화에 대한 전파역할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류와 이문화이해교육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표류인들은 표착지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알게 되는데 이로써 자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탐라문건록> 제5화 강두추·고수경은 일본 표류를 통해 자국에 대한 놀라운 상황을 알게 된다(정운경 저, 정민 역, 2008: 85).

‘큰 밥주발에 늦수저로 밥을 퍼서 먹으니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조선은 외관(外官)이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니, 빈한한 양반이 요행히 100리 고을의 수령이 되면 온통 자손의 먹고살 도리에만 마음을 쏟아 과외로 징수하여 거두어 절제함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좋습니까?’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이 탐욕스런 마음이 많고, 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국에서 이미 오랜 세월 거주해온 통사로부터 듣게 되고 또 부산에서 서울 남대문까지 붉은 줄로 길을 그려 안팎에 관원의 숫자를 적어놓은 지도도 보게 된다. 또한 그 통사와 장기를 두게 되었는데 ‘조선은 대국(大國)이니, 만약 소국 사람에게 진다면 부끄러운 일이 지요’라고 하면서 조선이 특하면 대국을 일컬음도 지적받게 된다. 이로써 표류인들은 자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이상과 같이 제주인들이 표류하여 이국에 가서 색다른 이문화를 체험하는 경우 외에 제주인과 외국인 상호간의 이문화이해를 촉진시켜준 또 다른 중요한 계기는 제주도에 표착하는 외국인들을 통해 얻게 되는 이문화접촉의 경우이다. 이는 제주인이 직접 표류하여 이문화를 접촉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이문화를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제주인의 직접 표류는 주로 한반도 주변국이었고 멀어야 안남이나 여송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인 반면 표도인들은 서양인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인들로 하여금 한반도 주변의 이문화 특히 서양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내지는 서양에 제주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한반도에 유럽을 소개한 박연(Jan Janse Weltvree)이나 처음으로 서양에 한국을 소개한 하멜의 <난선제주도난과기(蘭船濟州島難破記: Relation du Naufrage d'un Vaisseau)>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한반도 주변국 이를테면 중국, 일본, 유구 좀 더 멀리 안남, 여송 등 나라들의 표도인들은 빈번하였음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제주도를 알리게 됨으로써 조선인들이 그 나라에 표착했을 경우 이문화이해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창석(1997: 255)은 19세기 제주에 표도한 외국인에 관한 연구에서 내박한 외국선에 대한 문정을 통해 얻어낸 지식의 활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국적 및 지방 명, 소관 행정단위, 관원의 품직, 지역 간의 수로와 육로의 거리 등은 도민들이 이국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선박이 표도되어 올 때나 귀국할 때 요구되는 바람의 방향에 대한 지식은 우리 선박의 운항에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이고, 배에 대한 자세한 인식은 배의 제작기술 습득 면에서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며, 선재물(船載物)의 명칭, 용도, 가격 등은 이국의 상품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표류는 그야말로 조선 당대에 있어 남다른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표류민들이 스스로 글을 알아 그 기록을 남겼더라면 더 좋은 일이나 대다수의 표류민은 스스로 글을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었다. 이러한 표류민들의 귀한 경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주도를 방문한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박지원이 제주인이 방역의 표류경험을 기록한 것과 같이 개별적인 표류민을 상대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 정운경과 같이 제주 표류인을 일일이 인터뷰하면서 남긴 기록도 있다. 특히 <탐라문견록>의 저자 정운경이 취재했던 최 연장자이자 일본 취방도에 표류했던 관노 우빈은 표류사건 발생 후 52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류상황을 구술했고 안남국에 표류했던 고상영도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류상황을 구술하고 있다(정운경 저, 정민 역, 2008: 27)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고상영의 표류기 관련 내용은 모두 세 가지 표류기²⁵⁾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표류인들이 이미 오랜 세월을 두고 자신의 표류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이라는 단편적인 증거가 되겠다.

표류인과 표착지 문화의 돌발적인 접촉과정은 표류인들이 지배계층에 의해 이미 있는 문화전통적인 지식을 전수받거나 습득하는 과정인 것이 아니라 그곳 문화를 직접 접촉하고 체험하고 그 충격을 받으면서 지식을 만들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교육과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표류인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그들이 귀향한 후 사회의 구석구석에 전파될뿐더러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이문화이해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표류인들의 지식구성은 유배인들에게서 전수 받는 수동적인 것에 비해 스스로 지식체계를 구성해가는 능동적인 과정인 것이며 조선왕조에 있어 지배를 위한 형식적인 교육과 달리 지방 민중들의 삶을 위한 사회교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사가 왕조사·제도사·정당사만일 수 없고, 경제사가 화폐사·경제제도사·은행사만일 수 없듯이 교육사 역사 제도적·형식적 교육의 역사만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사회교육은 사회체제를 지속시키거나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문화 안에서 진행되는 생활교육 즉 저들의 삶의 경험 그 자체인 것이다(김인회, 1994: 66-78). 이렇게 보면 표류는 곧 그 생활교육의 일부였고 표류를 통한 이문화접촉과 이해과정은 곧 삶의 경험 그 자체인 것이며 그 경험이 전해지는 순간 그것은 민중의 사회교육이 되는 것이다. 특히 출륙억제정책으로 막혀 있

25)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 1633~1704)가 자신의 제주 재임 시의 일을 기록한 《지영록(知瀛錄)》에 실린 <김대황표해일록(金大璜漂海日錄)>이고, 정동유(鄭東愈, 1744~1808)가 지은 《주영편(晝永編)》에 역관 이제담(李濟聃)이 제주에 머물면서 고상영과 만나 기록한 안남표류기, 정운경(鄭運經, 1699~1753)의 《탐라문견록》의 기록이다.

있던 제주인들의 삶에의 충동에 유배인들의 지적 유산이 가장 큰 교육적 자극이 되었다면(양진건, 1999: 521) 표류를 통한 이문화접촉의 경험적 유산 역시 교육적 자극으로서 제주도 민중교육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으로 표류가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해상표류를 통해 독특한 경험을 한 제주백성들의 표류경험을 담은 표류기록에는 직접 교육과 관련된 진술은 적었으나 표류를 통해 이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지식들이나 견문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주인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결국 이문화를 자국에 이해시키고 유포시키는 과정은 하나의 지식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 교육적 측면의 공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민중의식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표류기록에서 등장하는 필담형식의 의사소통방식은 한자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였고, 선박의 구조와 제조과정이나 물방아, 수차 등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전파했다는 면에서 기술교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표착지의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이국의 언어를 전파했다는 면에서 외국어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표류인들의 이문화이해과정은 표류인 다수가 양인이하의 천한 신분으로서 이문화에 대한 이해 및 견문의 전달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민중의 이문화접촉과 이해를 촉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진 선상·과거·유배정책들은 수동적이고 지배를 위한 교육으로서 제주의 형식적 교육의 형성의 동인이었다면 아래로부터, 내부로부터 주어진 표류는 제주인들의 능동적인 접근으로 그것이 비록 돌발적이고 무의식적이라고 하지만 제주인의 삶을 위한 사회교육 형성의 동인으로 확립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표류인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게 모르게 진행되었던 외국어, 조선기술 등 실업교육과 이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문화이해교육은 유배나 선상 등 중앙의 정책적 동인들과 더불어 조선조 제주교육사를 형성시킨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조선왕조실록』.
- 『三國志』 魏書 東夷傳 30.
- 姜昌龍, 高昌錫, 金東杼, 金祥玉 외(1997).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서울 : 一志社.
- 高東煥(1993).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 14, 283-336.
- 김봉옥(2001). 제주통사. 제주 : 세림.
- 김봉옥, 김지홍(2001). 옛 제주인의 표류기.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 김은중(2007). 금남 표해록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회(1994).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서울 : 문음사
- 閔德基, 孫承喆, 河宇鳳, 李薰, 鄭成一(2000). “韓日間 漂流民에 관한 研究”.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12, 5-69.
- 朴眞美(1996). “漂人領來謄錄의 綜合的 考察”. 경북사학회, 경북사학 19(1), 193-241.
- 양진건(1999). “朝鮮朝 濟州教育史 形成의 政策的 動因”. 韓國教育史學會, 韓國教育史學 21, 505-525.
- 원종민(2008).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44(1), 225-260.
- 吳鎭錫(1984). 漢文紀行 研究-張漢喆의 漂海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치부(1991). 韓國 海洋文學 研究-漂海類 作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劉序楓(2009). “近世東亞海域의 僞裝漂流事件: 道光年間的 朝鮮 高閑祿의 中國漂流事例를 中心으로”. 漂流와 東아시아의 文化交流.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 83-84.
- 정운경 저, 정민 역(2008). 탐라문견록. 서울 : 휴머니스트.
- 서귀포시(1995). 제주계록. 서귀포시.
- 최윤경(2008). “이문화 접촉과 언어변화”.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 44, 243-263.
- 한라일보. 2009년 3월 20일 자.

□ 원고접수 : 2009년 11월 10일 / 수정완료 : 2009년 12월 13일 / 게재승인 : 2009년 12월 21일

□ 김해영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연구관심 분야: 근대민족교육사.

jinhaiying1265@hanmail.net

□ 양진건 :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관심 분야: 교육사 · 교육문화. yjgeon88@jejunu.ac.kr

<ABSTRACT>

**The Research on Drifting for Reason of Formation in Jeju
Educational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Jin, Hai-ying · Yang, Jin-ge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rifting which are another important reason of the formation in the Jeju educational history during the Joseon Dynast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drifting and the educational history of Jeju due to its isolation from the mainland and its natural environment. First of all, we look for the Jeju's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features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Jeju Island and the drift. Then, organized the contents of educational interpretation and educational statements which are left by drifting peoples to find out the direct formation about education. Finally, with the drift appeared cross-cultural contact and cross-cultural understanding, cross-cultural spread, we can identify how did the Jeju people change in consciousness and formation of changes in consciousness about Jeju education. As a result, like board, past, exile which is passive from the top, from the outside is very different with the drift of Jeju people which is active by the impact on education from below, from the inside. In addition, the education which is formed by influence of drift is not Formal Education for the ruling class to dominated, that is Social Education for the people's life by local people.

Key Words : drifting, Jeju educational history, reason, people, cross-cultural understanding